

# 휴먼컨설팅그룹 보도자료집

한눈에 보는 HCG 뉴스

2024.04 – 2025.06



# Contents

## 보도자료 목록

| 번호 | 날짜         | 유형     | 해당 사업부  | 기사 제목                                                     |
|----|------------|--------|---------|-----------------------------------------------------------|
| 1  | 2025.06.05 | 제품/서비스 | 휴넬      | <a href="#">휴먼컨설팅그룹, HR 솔루션 '휴넬' 업그레이드 ... 중견기업 부담 완화</a> |
| 2  | 2025.05.30 | 기획기사   | 전사 공통   | <a href="#">AI는 HR 영역을 어떻게 바꾸고 진화시킬까</a>                  |
| 3  | 2025.05.29 | 제품/서비스 | 급여 아웃소싱 | <a href="#">기업이 급여 아웃소싱 맡길 때 가장 먼저 따지는 3가지</a>            |
| 4  | 2025.05.15 | 제품/서비스 | 제이드     | <a href="#">HR 정보 안전하게 관리... 휴먼컨설팅그룹 '제이드' 시장에 눈도장</a>    |
| 5  | 2025.05.09 | 제품/서비스 | 휴넬      | <a href="#">휴먼컨설팅그룹 휴넬 "HR 시스템 개인화 시대 연다"</a>             |
| 6  | 2025.05.08 | 행사/활동  | 탈렌엑스    | <a href="#">"HR 서비스, 변하는 다양한 요구 만족시켜야"</a>                |
| 7  | 2025.04.24 | 제품/서비스 | 급여 아웃소싱 | <a href="#">휴먼컨설팅그룹 "글로벌기업 韓법인, 급여업무 외부 위탁 늘어"</a>        |
| 8  | 2025.04.18 | 제품/서비스 | 제이드     | <a href="#">중소기업 위한 HR시스템 선택 기준 6가지</a>                   |
| 9  | 2025.04.15 | 기업/브랜드 | 전사 공통   | <a href="#">휴먼컨설팅그룹, AI×HR R&amp;D센터' 기업부설연구소 설립</a>      |
| 10 | 2025.04.09 | 기업/브랜드 | 전사 공통   | <a href="#">휴먼컨설팅그룹, 작년 매출 396억원 · 영업이익 52.8억원</a>        |
| 11 | 2025.04.03 | 제품/서비스 | 휴넬      | <a href="#">휴먼컨설팅그룹 "HR 솔루션 '휴넬', 강력한 정보보호 강점"</a>        |
| 12 | 2025.03.27 | 제품/서비스 | 급여 아웃소싱 | <a href="#">휴먼컨설팅그룹, "급여 아웃소싱, 기업 필수 도입 서비스로 부상"</a>      |

# Contents

## 보도자료 목록

| 번호 | 날짜         | 유형     | 해당 사업부 | 기사 제목                                                                 |
|----|------------|--------|--------|-----------------------------------------------------------------------|
| 13 | 2025.03.20 | 사업 수주  | 탈렌엑스   | <a href="#">휴먼컨설팅그룹, 나이스그룹에 HR SaaS '탈렌엑스' 공급</a>                     |
| 14 | 2025.03.20 | 인터뷰    | 전사 공통  | <a href="#">"AI+HR시래 공포, 지레 겁먹을 필요 없다"[ER인터뷰]</a>                     |
| 15 | 2025.03.14 | 제품/서비스 | 제이드    | <a href="#">HCG 제이드, 통상임금·육아지원 3법 등 반영해 中企 HR 지원 강화</a>               |
| 16 | 2025.03.11 | 사업 수주  | 휴넬     | <a href="#">HCG, SK바이오사이언스 HR 시스템 구축</a>                              |
| 17 | 2025.02.27 | 제품/서비스 | 탈렌엑스   | <a href="#">"들켰다 내 마음"...휴먼컨설팅그룹, 동료 평가에 AI 감정 분석 적용</a>              |
| 18 | 2025.02.25 | 제품/서비스 | 제이드    | <a href="#">휴먼컨설팅그룹 "HR 시스템 '제이드' 15년간 연평균 성장률 41%"</a>               |
| 19 | 2025.02.18 | 기업/브랜드 | 전사 공통  | <a href="#">휴먼컨설팅그룹, HR SaaS로 '연구개발형 벤처기업 인증' 획득</a>                  |
| 20 | 2025.02.06 | 사업 수주  | 휴넬     | <a href="#">휴먼컨설팅그룹, 대기업 e-HR 솔루션 구축 계약 150건 돌파</a>                   |
| 21 | 2025.01.21 | 행사/활동  | 전사 공통  | <a href="#">"AI가 HR 업무 대체"...HCG, 2025년 HR 전망 발표</a>                  |
| 22 | 2024.12.19 | 행사/활동  | 제이드    | <a href="#">휴먼컨설팅그룹, 중소기업용 HR 솔루션 '제이드' 세미나 성료</a>                    |
| 23 | 2024.12.03 | 제품/서비스 | 휴넬     | <a href="#">휴먼컨설팅그룹, 금융권 e-HR 솔루션 대거 수주...시장 지배력 강화</a>               |
| 24 | 2024.11.21 | 기업/브랜드 | 전사 공통  | <a href="#">휴먼컨설팅그룹, 60억 규모 유동화 회사채 발행...HR SaaS 플랫폼 '탈렌엑스' 개발 박차</a> |

# Contents

보도자료 목록

| 번호 | 날짜         | 유형     | 해당 사업부 | 기사 제목                                                          |
|----|------------|--------|--------|----------------------------------------------------------------|
| 25 | 2024.10.02 | 기업/브랜드 | 전사 공통  | <a href="#">휴먼컨설팅그룹, ISO/IEC 27001-ISMS 인증 획득...개인정보 보안 강화</a> |
| 26 | 2024.09.03 | 제품/서비스 | 탈렌엑스   | <a href="#">"개인주의 성향MZ 세대, '협업과 팀워크' 뛰어난 동료 선호한다"</a>          |
| 27 | 2024.08.20 | 인터뷰    | 전사 공통  | <a href="#">휴먼컨설팅그룹 "국내 환경에 맞춘 HR 솔루션, SaaS 시장까지 확장"</a>       |
| 28 | 2024.07.24 | 인터뷰    | 전사 공통  | <a href="#">한국기업 맞춤 HR솔루션...'K인사관리' 호응</a>                     |
| 29 | 2024.06.12 | 제품/서비스 | 탈렌엑스   | <a href="#">HCG, HR SaaS 플랫폼 '탈렌엑스' 출시..인재관리 혁신</a>            |
| 30 | 2024.04.29 | 기업/브랜드 | 전사 공통  | <a href="#">5년간 매출액 2배 이상 성장...HCG, "대기업 HR테크 시장 석권 기대"</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휴먼컨설팅그룹, HR 솔루션 '휴넬' 업그레이드...중견기업 부담 완화



QR클릭



휴먼컨설팅그룹(이하 HCG)은 자사 인적관리(HR) 솔루션 '휴넬'의 스탠다드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며, 중견기업을 위한 도입 장벽을 낮췄다고 5일 밝혔다.

휴넬은 대기업과 그룹사 등 복잡한 인사 운영 체계를 가진 조직을 대상으로 설계된 e-HR 솔루션으로, 기업별 맞춤형 인사 관리 시스템 구축에 특화된 것이 특징이다. 고도화된 인사 구조와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유연성과 확장성을 기반으로, 중간 대규모 기업 위주로 도입돼 왔다.

이번 업그레이드는 이러한 휴넬의 기술력과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중견기업이 보다 빠르고 실용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스탠다드 기능을 최적화한 데에 초점이 맞춰졌다. 기존에는 기업별 맞춤 개발 중심의 복잡한 구축 과정과 리소스 투입이 필요했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도입 시 스탠다드 패키지를 선택해도 HR에 필요한 핵심 기능을 모두 이용할 수 있어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과 예산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

특히 다양한 근무 유형이나 유연·탄력근무제 등 변화하는 제도에도 표준 기능만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설정 방식을 고도화했다. HR 전담 인력이 부족한 조직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조회나 신청 화면 사용자환경(UI)을 개선하고 챗봇 기능도 강화했다. 메인 대시보드는 개인 맞춤형 정보 접근성을 높이도록 콘텐츠 구성을 확대해 실시간 알림, 근무 현황, 인건비 등의 정보를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HCG는 휴넬 스탠다드 패키지 도입 기업들이 초기에 핵심 기능부터 빠르게 적용하고, 필요에 따라 확장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 효율성과 전략적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시스템 도입을 고려하나 예산·인력 제약이 있는 기업 ▲복잡한 커스터마이징 없이 주요 기능만 빠르게 도입하고자 하는 조직 ▲추후 확장을 염두에 둔 단계적 도입을 선호하는 중견기업들에게 적합하다. HCG는 이러한 고객 니즈에 맞춰 스탠다드 기능 중심의 도입에도 활용 가능한 패키지 적용 방법론을 통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김영만 HCG 전무(휴넬 COO)는 "이번 휴넬 업그레이드는 기술적 완성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기업의 도입 부담은 실질적으로 낮춘 것이 핵심"이라며 "더 많은 조직이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HR 시스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AI는 HR 영역을 어떻게 바꾸고 진화시킬까



QR클릭



생성형 AI의 등장은 인적자원(HR) 분야에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 역할과 가치 자체를 재정의하는 근본적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반복 업무를 줄이고 전략적 의사결정 역량을 강화하는 AI는 이제 HR의 '도구'를 넘어 '협력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휴먼컨설팅그룹(HCG)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술'과 '구조'의 이중 혁신을 추진하며, HR 서비스 개발부터 조직 맞춤형 솔루션 제공까지 AI 기반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AI의 등장 이후 HR 분야는 효율성 향상과 업무 자동화를 넘어

본질적인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최근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폭발적인 확산은 업무의 단순 반복 작업을 감소시키고, 인간의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역할을 한층 더 부각시켰다. HR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AI 기술은 HR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HR 업무 자체의 '역할'과 '가치'를 근본적으로 재정 의하고 있다.

최근 개발자 사이에서 주목받는 '바이브 코딩'(사람과 AI가 자연어 대화를 통해 개발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방식) 개념은 이런 패러다임 전환을 잘 보여준다. 이제 개발자는 선형적인 코드 구현에서 벗어나 다차원적인 시스템 구상과 비전 설계로 역할이 진화하고 있다. 나아가 개발자와 AI의 협업은 기존에 불가능했던 수준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만들었다.

HR과 AI의 결합은 단순히 행정 업무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HR이 접근할 수 있는 복잡성의 수준과 차원을 근본적으로 확장시켰다. 이제 HR은 개인 수준의 세밀한 데이터와 조직 전체

의 거시적 패턴을 동시에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교한 인재 전략과 맞춤형 조직 문화 설계가 가능해졌다. 이는 단순한 처리량의 증가가 아닌, 인적 자원에 대한 이해와 접근 방식의 패러다임 전환을 뜻한다. 핵심은 이같은 변화가 단순한 '도구'의 추가가 아니라, HR과 AI가 상호작용하며 더 높은 차원의 복잡성을 다루는 '협력적 파트너십'이라는 것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HR 분야에서 AI를 단순한 도구가 아닌 '협력적 파트너'로 인식하는 전환이 중요하다. AI에게 일부 업무를 위임하는 차원을 넘어, 인간과 AI가 각자의 강점을 활용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관계로 발전함을 의미한다. 이런 협력 관계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AI와 인간의 상호작용 방식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법 규정 준수처럼 엄밀성과 일관성이 중요한 업무에는 통제된 AI 지원이 효과적이며, 인재 개발이나 조직 문화 설계처럼 창의성과 복합적 판단이 요구되는 영역에서는 AI의 창작적 활용과 이에 대한 사람의 합리적 피드백이 중심이 돼야 한다.

# AI는 HR 영역을 어떻게 바꾸고 진화시킬까(계속)



QR클릭

업무 프로세스 또한 UX(User Experience)와 AX(Agent Experience)를 동시에 고려해 재설계해야 한다. 이는 기존 프로세스에 AI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AI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상호작용 중심의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재구성은 단순히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HR 업무의 본질적 가치와 영향력을 한 차원 높이는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AI 시대의 빠른 기술 변화와 불확실성을 감안한 '진화적 접근법'이다. 현재 AI와 관련된 기술과 활용 분야는 안정화된 모습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하는 역동적 생태계와 유사하다. 결국 AI × HR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최종 목적지보다는 '지속적인 진화 과정' 자체에 있다. 이를 통해 조직은 단지 AI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유연하게 적응하고 혁신할 수 있는 메타 역량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변화의 흐름 속에서 휴먼컨설팅그룹(이하 HCG)은 HR의 디지털 전환을 꾸준히 시도하며 AI 시대에 대응 중이다. 특

히 AI 기술을 보다 실질적으로 HR에 적용하기 위해, 기술적 기반과 구조적 혁신을 병행하는 연구를 강화하고 있다. HCG는 먼저 AI 에이전트가 보안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대규모 인사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복잡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 환경을 구축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HR 시스템에 AI 기술을 효과적으로 결합하기 위한 기술 및 개발 방법론도 함께 연구하고 있다. 기존 인프라의 기능을 AI가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이 과정에서 개발 효율성을 높이는 구조적 접근도 포함된다. 아울러, AI 도입으로 변화하는 HR 업무의 본질을 재정의하고, 사람과 AI가 각자의 강점을 살려 협업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업무 프로세스와 역할 설계를 병행해 나가고 있다.

이 밖에도 HCG는 AI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HR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플랫폼인 '탈렌엑스'에 피드백 감정 분석 기능을 AI 기반으로 구축해 특허를 출원하기도 했다. 이 기술은 직원들의 텍스트 피드백을 자동으로 분석해 긍정·부정·중립으로 분류하고 워드클라

우드 등으로 시각화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HR 피드백에 특화된 데이터셋을 활용해 높은 정확도를 나타냈다.

HCG는 지난 4월, 조직 내부의 AI 전문성, 리소스, 거버넌스를 통합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AI × HR R&D Center'를 개설했다. 이 연구소는 AI 기술을 활용한 HR 서비스 개발을 넘어, 실제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 핵심 거점으로 운영된다. HCG는 이를 통해 인사 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AI 기반으로 해결하고, HR의 본질적 가치를 한층 더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HCG는 고객 규모와 조직 구조, 디지털 성숙도에 따라 차별화된 HR 솔루션을 제공하며 맞춤형 혁신을 추진 중이다. 대기업 그룹사 및 복잡한 인사체계를 가진 금융·공공 부문에는 유연한 구축이 가능한 '휴넬'을, 중견·강소기업에는 표준화된 프로세스와 유연성을 균형 있게 갖춘 '제이드'를 공급한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으로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에는 최신 기술을 접목한 HR SaaS 플랫폼 탈렌엑스를 제공하며, 변화하는 시장 요구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다.

# 기업이 급여 아웃소싱 맡길 때 가장 먼저 따지는 3가지



QR클릭

최근 빈발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기업들의 급여 아웃소싱 파트너 선택 시 고려하는 기준도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급여는 민감한 데이터가 다뤄지는 영역으로, 단순한 업무 효율성과 비용 절감보다는 실제 운영의 안전성과 보안 체계가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추세다.

이런 흐름 속에서 휴먼컨설팅그룹(대표 박재현, 이하 HCG)은 급여 아웃소싱 다수 고객사와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고객사들이 파트너 선정 시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기준을 세 가지로 정리해 발표했다.

첫째 ISMS(국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와 ISO/IEC 27001:2022(정보보안 국제인증) 보유 여부다. 이를 바탕으로 외부 침입 방지부터 직무별 접근 권한 설정, 접속 이력 기록 등 구체적인 운영 통제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가 핵심 평가 대상이 된다.

둘째로 운영을 맡은 조직과 인력의 전문성이다. 기업들은 담당자의 보안 인식 수준, 개인정보 취급 경력 등 실무적인 대응 능력을 실제 파트너사 결정의 핵심 기준으로 삼는다. 특히 금융권이나 외국계 기업처럼 높은 보안 기준을 요구하는 고객일수록 운영 주체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면밀히 따진다.

셋째는 유연한 운영 구조다. 맞춤형으로 시스템을 개발해 비용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 중요하게 살펴보고, 세법·노동법 등 법적 규제에 대한 대응 능력도 주요 판단 기준이 된다. 기업들은 변경되는 규정을 신속히 시스템에 반영하고, 정기적인 법규 교육이나 법규준수 보고가 가능한 파트너사를 선호한다.

휴먼컨설팅그룹은 ISMS와 ISO/IEC 27001:2022 등 국내외 정보보호 인증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보안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전사 차원에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중심으로 한 전담 조직이 보안 관리를 총괄하며,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과 보안 점

검을 병행하고 있다. 접속 기록 자동 보관, 퇴직자 계정 자동 차단과 같은 기술적 보호 조치를 일상 업무 흐름에 내재화해 운영 중이며, 내부 보안 뉴스 발행 등을 통해 실무자들의 보안 감수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급여 아웃소싱 사업부에서는 고객사 데이터를 다루는 실무자에게 2차 인증 장치를 설치하고, 정기적인 로그인 갱신을 통해 접속 보안을 강화하는 등 한층 더 정교한 보안을 적용한다.

휴먼컨설팅그룹 PO 사업본부장 허욱 전무는 "급여 아웃소싱은 단순한 외주 업무가 아니라, 기업의 민감한 정보를 맡기는 일인 만큼 '신뢰'를 기준으로 파트너를 평가하는 시대가 됐다"며 "보안 인증을 넘어 실제 운영 현장에서 얼마나 세밀한 대응과 실질적인 보호 체계를 제공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 HR 정보 안전하게 관리...휴먼컨설팅그룹 '제이드' 시장에 눈도장



QR클릭

디지털 기반의 HR 솔루션 도입이 확산되면서, 정보보호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기준이 되고 있다. 특히 급여, 직책자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집중된 HR 솔루션의 특성상 해커들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어 보안 역량도 인사관리 시스템 선택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국내 한 통신사의 유심 데이터 유출 사고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 전반의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HR 테크 선도기업 휴먼컨설팅그룹(대표 박재현, 이하 HCG)의 중소기업 맞춤형 HR 솔루션 '제이드(JaDE)'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목받고 있다. 제이드는 보안을 핵심 설계 원칙으로 삼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기능과 체계를 시스템 전반에 내재화한 것이 특징이다.

제이드는 업무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수집한 모든 정보에 대해 사용 목적과 보유 기간을 명확히 정의해 관리한다. 수명이 종료된 정보는 시스템 내 자동 파기 프로세스를 통해 안전하게 삭제된다. 또한, 직무별로 세

분화된 접근 권한을 부여해 불필요한 정보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중요 정보 조회 시에는 다단계 인증 절차, 일정 기간 미사용 시 자동 로그아웃 기능을 적용해 사용자 인증의 안전성을 높였다.

민감 정보는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되며, 필요에 따라 일부 정보는 화면상에서 마스킹 처리된다. 모든 주요 작업은 감사 로그로 기록되고, 이상 접근이나 비정상적인 행위가 감지되면 실시간으로 경고 및 차단이 이뤄진다. 이러한 모니터링 체계는 무단 접근 및 정보 유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법적 규제 대응력도 제이드의 강점 중 하나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국내 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고용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정보보안 조치들도 시스템에 반영돼 있다. 또한 정보보안 국제인증 ISO/IEC 27001:2022, 국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ISMS를 확보해 보안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했다.

허욱 휴먼컨설팅그룹 전무는 “중소기업은 전담 보안 인력을 두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HR 솔루션 자체가 법과 기술 기준을 선제적으로 충족하는 구조여야 한다”며 “제이드는 인사 담당자가 별도 조치 없이도 안정적인 정보보호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 휴먼컨설팅그룹 휴넬 "HR 시스템 개인화 시대 연다"



QR클릭



휴먼컨설팅그룹(대표 박재현, 이하 HCG)이 자사의 HR 솔루션 '휴넬'의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완료하고, HR 시스템의 개인화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업그레이드는 관리 효율을 우선시하던 기존 HR 시스템의 한계를 넘어, 근무 직원 개개인의 경험과 편의성을 중심으로 설계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데이터 관리 도구에서 직원 스스로가 손쉽게 인사 서비스를 이용하고, 개인화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경험 중심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휴넬은 이번 개편을 통해, 복잡한 절차 없이 직원들이 직접 HR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셀프 서비스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휴가 신청, 평가 확인 등 주요 업무에 접근하는 경로를 간소화하고,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했다. 특히 모바일 플랫폼을 전면 개편해, 이동 중에도 PC 수준의 다양한 인사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HR 운영 환경을 마련했다.

직원 지원 기능도 강화됐다. 인사 정책이나 시스템 사용법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경우, 별도의 문의나 매뉴얼 확인 없이 챗봇 기반 실시간 안내 서비스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메인 화면도 크게 달라졌다. 사용자의 직무, 직급, 업무 패턴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우선 제공하고, 자주 사용하는 HR 기능은 원클릭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개인 맞춤형 위젯 구성을 적용했다. 또 중요한 일정·공지사항·요청사항 등은 개인별 맞춤 알림 기능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돼, 커뮤니케이션 오류나 일정 누락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입사부터 퇴사까지 이어지는 직원 생애주기에 맞춘 HR 프로세스 자동화 기능도 강화됐다. 온보딩부터 승진·보상·평가·경력개발·오프보딩에 이르기까지 커리어 단계별 업무가 시스템 안에서 자동으로 연결돼 실행되며, 직원 개인의 커리어 경로에 맞춘 자연스러운 지원이 가능해졌다.

휴먼컨설팅그룹의 휴넬 최고운영책임자 김영만 전무는 "이제 HR 시스템은 관리자 중심이 아니라, 구성원의 몰입과 만족을 이끌어내는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한다"며 "휴넬은 앞으로도 사용자 중심 혁신을 지속, 디지털 HR 전환과 조직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솔루션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HR 서비스, 변하는 다양한 요구 만족시켜야"



QR클릭

HR 서비스가 변화하는 사용자들의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변화 가능성을 전제로 설계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HR 서비스가 소개됐다.

8일 이하진 휴먼컨설팅그룹(HCG) 프로그램 디렉터와 강진수 디자인총괄은 지디넷코리아가 주최한 'HR테크 리더스 데이'에 참석해 "사람들이 가진 HR 문제는 무엇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기술이 AI라면 이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첫 번째 키노트 발표자로 참석한 강진수 디자인 총괄은 HR를 설명하기 위한 키워드로 '디자인'을 제시했다.

강 총괄은 "디자인은 '어떻게 보이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작동하는가'다"며 "누가 어떻게 쓰는가라는 작동 방식 자체가 디자인이 되는 것으로 무엇이 불편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답하는 하나의 방법론"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디자인적 사고(Design Thinking)'로 정의한다고 강 총괄

은 강조했다. HR 서비스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설정하는 ▲어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가 ▲기술을 유지할 기술자는 충분한가 ▲기술을 접목할 곳은 어디인가 등의 사고 흐름은 잘못된 순서라는 것이다.

강 총괄은 "올바른 순서는 'HR 서비스는 왜 존재하는가'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의 순서"라며 "즉 기술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본질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하진 디렉터는 변화한다는 의미의 '페르소나' 키워드를 통해 HR 서비스를 설명했다. 구성원·기업규모·영역 등에 따라 변화하는 HR 니즈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디렉터는 "구성원들이 성장함에 따라 요구사항은 변화하고 회사의 사업 방향이나 전략도 수정돼 HR 니즈는 항상 변화한다"며 "과거 HR 시스템 구축은 정해진 요구 사항을 수집하고 그에 맞는 기능을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 변화하는 요구를 모두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의 역할은 상황에 따라 어떻게 바뀌고 어떤 정보와 기능을 요구하게 될까를 고려해 HR 시스템 설계의 구조적인 차원부터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휴먼컨설팅그룹의 HR SaaS 플랫폼 '탈렌엑스(talenx)'를 제시했다. 탈렌엑스는 근무관리, 인사관리, 워크플로우 등 HR의 주요 모듈을 추가 개발, 결합한 올인원 통합 인재 플랫폼이다.

강 강 총괄은 "탈렌엑스 서비스 설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잡은 방향성은 유연하게 대응하는 구조"라며 "홈 화면을 뜻하는 대시보드가 개인이 설정할 수 있는 형태로 설계했고 위젯별 노출 여부와 순서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명의 구성원이 회사 내에서 여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만큼 복수의 대시보드를 만들어 본인의 필요에 따라 구성할 수 있게 했다"면서 "전사에 일괄 적용할 수 있는 고정 대시보드도 존재해 기존 시스템에서 유용했던 통제 관점의 니즈도 충족시켰다"고 덧붙였다... (기사 일부 발췌)

# 휴먼컨설팅그룹 "글로벌기업 韓법인, 급여업무 외부 위탁 늘어"



QR클릭

휴먼컨설팅그룹(대표 박재현, 이하 HCG)은 글로벌 기업들의 한국법인이 급여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법적 리스크, 기밀유지, 데이터 보안 등 다양한 요구사항을 안정적으로 충족하기 위해, 급여 아웃소싱(Payroll Outsourcing, PO)이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은 급여 아웃소싱을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로, 내부 인사 인력이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입을 모았다. 급여 업무는 ▲노동법·세법·사회보험 등 자주 변경되는 법적 기준의 신속한 반영 ▲성과·수당·복리후생 등 개별 요소의 반영 ▲외국인 세율 대응 등 복잡성과 리스크가 높은 영역이다. 이에 글로벌 본사는 현지 법규에 맞는 처리와 전사적 보고가 가능하도록 한국 법인의 급여 업무를 신뢰 가능한 전문 파트너에 위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변화에 발맞춰 HCG는 자체 HR 솔루션 제이드, 휴넬, 탈렌엑스를 통해 **글로벌 기업에 최적화된 급여 아웃소싱 솔루션**

**을** 제공하며 시장 입지를 넓히고 있다. 특히 **정보보안 국제 인증 ISO/IEC 27001:2022, 국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ISMS를 확보**하기도 했다. 또 사업변화와 인력변동에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하고, **전문 인력을 통한 관리 지원으로 업무에 편의와 정확성**을 높인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휴먼컨설팅그룹 PO 본부는 2018년 설립 이후, 초기 고객사들과의 계약이 현재까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최근 전사 차원에서 진행된 고객성공관리 분석에 따르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실무 담당자와의 신뢰 기반 협업이 장기 계약 유지의 핵심 요인으로 확인됐다.

급여 아웃소싱 서비스의 효율은 글로벌 기업들의 성과 사례를 통해 더욱 뚜렷하게 확인된다. 미국에 기반을 둔 모 헬스케어 기업은 한국 법인 설립 초기부터 HCG의 급여 아웃소싱을 도입했다. 이 덕분에 내부 HR 인력이 핵심 전략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조기에 확보하고, 구성원 만족도 역시 뚜렷하게 상승하며 업계 평균을 상회하는 빠른 성장을 기록했다.

또한 모 일본 기업은 주재원세금(TEQ), 배당소득세, 외국인 단일세율 등 다국적 과세 이슈를 고려해 아웃소싱 도입을 결정했고, HCG PO 본부를 파트너로 선정하여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급여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이밖에 영국 본사를 둔 모 산업가스 기업은 내부 통제와 정보 보안 수준이 매우 높은 운영 정책을 유지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HCG의 급여 아웃소싱 서비스를 도입해 글로벌 본사의 보안 기준과 내부 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운영 체계를 구축했다.

HCG PO 사업본부장 허욱 전무는 "글로벌 본사를 둔 기업들은 급여 업무를 단순 위탁이 아닌 조직 전략의 일부로 접근하고 있다"며 "**HCG는 국내 법규뿐 아니라 다국적 회계 기준과 운영 정책을 모두 이해하는 파트너로서 급여 아웃소싱을 통해 고객사의 전략적 유연성과 운영 효율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중소기업 위한 HR 시스템 선택 기준 6가지



많은 중소기업들이 인사 업무의 디지털화가 시급하지만, 제한된 인력과 예산으로 효율적인 HR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직원 관리, 급여 계산, 성과 평가, 복리후생 등 인사 업무가 복잡해지면서 수기 관리 방식은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휴먼컨설팅그룹(대표 박재현, 이하 HCG)은 **HR 시스템 도입을 고민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선택 기준 6가지**를 18일 제시했다.

첫 번째로는 **예산과 비용 효율성**이다. 한정된 예산 내에서 꼭 필요한 기능만을 갖춘 시스템을 도입해야 장기적으로 비용 대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시스템 구축 방식**을 잘 인지하고 선택해야 한다. 개발 중심의 맞춤형 시스템은 요구사항을 세밀하게 반영할 수 있으나, 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반면, 표준 기능을 기반으로 한 **패키지형 시스템**은 기업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어, 빠른 도입이 가능하고 높은 구축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세 번째로 기업의 성장과 변화에 맞춰 시스템이 **유연성과 확장성**을 갖추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인사 운영 방식이나 인원 규모가 변할 때 기능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네 번째로 **사용자의 편의성** 역시 중요한 요소다. 복잡하고 어려운 시스템은 오히려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늘릴 수 있어, 간단한 교육만으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

다섯 번째로, 직원들의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만큼 **최신 보안 기술이 적용된 시스템**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여섯 번째로 **시스템 도입 이후의 지원 서비스**도 중요하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지보수 체계를 갖춘 솔루션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HCG는 중소기업 맞춤형 HR 시스템 '**제이드(JaDE)**'를 통해 기업들의 인사 업무를 **최적화**하고 있다. 제이드는 패키지형 시스템으로, 빠른 도입과 비용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설정을 통해 각 기업의 고유 제도와 프로세스를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다. 또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필요한 기능만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한 모듈 구성을 갖춰 사용자의 업무 부담을 줄여준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관리가 가능하며, 최신 법규 자동 업데이트 기능과 철저한 데이터 보안, 신속한 유지보수 체계까지 갖춰 안정적인 HR 환경을 제공한다.

HCG 허욱 전무는 "중소기업은 한정된 자원으로 효율적인 HR 운영을 해야 하는 만큼, 초기 도입부터 안정적인 운영까지 전 과정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다"며 "HCG는 중소기업들이 복잡한 인사관리 업무에서 벗어나 핵심 사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휴먼컨설팅그룹, 'AI×HR R&D센터'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QR클릭



HR 테크 선도기업 휴먼컨설팅그룹(대표 박재현, 이하 HCG)은 SaaS 기반 HR플랫폼 '탈렌엑스(talenx)'를 통해 연구개발형 벤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연구개발형 벤처기업 인증은 기술 개발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기업에게 주어진다. 기업이 자체 연구소를 보유하고, 연 매출 100억 원 이상의 소프트웨어 공급업의 경우 연구개발비가 매출액 대비 8% 이상을 차지해야 인증 조건이 갖춰진다.

HCG는 이미 2017년도에 맞춤형 e-HR 솔루션 '휴넬(hunel)'과 중소기업형 HR 패키지 '제이드(JaDE)'를 기반으로 연구개발형 벤처기업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HCG는 '탈렌엑스' 인증 획득으로 HR SaaS 시장 공략을 위해 기술 혁신과 R&D 투자에 집중하는 업계 선도 기업임을 또 한 번 시장에 증명했다.**

탈렌엑스는 성과관리 및 평가 모듈을 중심으로 ▲인사관리 ▲근무관리 ▲급여관리 ▲워크플로우 등 HR의 주요 기능을 결합한 올인원(All-in-One) HR SaaS 플랫폼이다. 다양한 모듈로 구성돼 있어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유연하게 활용 가능하며, 최신 클라우드 기술과 SaaS 기반으로 구축 비용과 도입 기간 없이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탈렌엑스는 최신 데이터 보안 기술을 적용해 민감한 HR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높은 수준의 보안성과 경쟁력을 갖춘 솔루션**으로 평가받고 있다.

HCG CPO 백승아 부사장은 “앞으로도 HCG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HR 테크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강화할 것”

이라며 “탈렌엑스를 중심으로 HR SaaS 솔루션의 혁신을 이끌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휴먼컨설팅그룹, 작년 매출 396억원 · 영업이익 52.8억원



QR클릭

휴먼컨설팅그룹(대표 박재현, 이하 HCG)은 지난해 매출 396억원, 영업이익 52.8억원, 당기순이익 58.5억원을 달성했다고 9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 대비 37%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86% 상승했다. 당기순이익률은 15%를 기록했다. 회사는 HR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기술 기반 R&D 투자 확대와 고객 맞춤형 전략이 전사 실적 상승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HCG는 최근 몇 년간 핵심 솔루션인 '휴넬', '제이드', '탈렌엑스'를 중심으로 HR 시스템 라인업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해 왔다. 특히 HR 업무 고도화와 보안·운영 효율성에 대한 기업 수요 증가에 맞춰 솔루션별 기술 경쟁력을 강화한 것이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각 솔루션이 서로 다른 고객군과 요구를 정확히 겨냥해 제 역할을 해낸 결과, 세부 사업 부문 모두 고른 성장을 기록했다. 대기업 HR 시스템 구축을 위한 휴넬은 국내 주요 그룹사 및

금융사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연달아 수주했다. 중견·강소 기업을 위한 패키지형 솔루션 제이드는 유연한 업무 설정 구조와 온보딩 리딩 서비스로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 2024년 올인원 HR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플랫폼으로 새롭게 출시된 탈렌엑스는 AI-클라우드·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해 HR SaaS 시장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기술 투자를 기반으로 한 제품 혁신 전략 역시 주효했다. HCG는 현재 hunel R&D Center, talenx R&D Center, AI×HR R&D Center 등 총 3개의 부설 연구소를 운영 중이다. 매년 전체 매출의 25%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있다. 특히 올해 3월 개소한 AI×HR R&D Center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을 포함해,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핵심 허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HCG는 올해도 R&D 중심의 제품 경쟁력 강화와 함께 CSM(Customer Service Management) 체계를 본격 도입해 고객의 성공과 만족도를 동시에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아시아를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도 준비해, 중장기적 성장 동력을

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박재현 HCG 대표는 "2024년은 R&D 투자 효과에 대한 확신과 고객 중심 전략이 성과로 이어진 한 해였다"며 "앞으로도 단기 성과보다 기술 내실과 고객 신뢰를 우선하며, 국내 대표 HR 테크 기업으로 자리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 휴먼컨설팅그룹 "HR 솔루션 '휴넬', 강력한 정보보호 강점"



QR클릭

HR 솔루션에서 '정보보호'가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AI 기반 피싱 공격과 원격근무 확산, 외부 협업 환경 증가 등으로 HR 솔루션을 통한 민감정보 유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특히 많은 국내 기업들이 폐쇄된 사내 시스템에서 인사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정보보호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 내부자 접근, 퇴직자 계정 방치, 접속 이력 미관리 등의 문제로 유출 사고 위험이 존재한다. 더불어 민감한 개인정보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높은 보안 수준을 요구할 경우 업무 편의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딜레마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휴먼컨설팅그룹(대표 박재현, 이하 HCG)은 자사의 HR 솔루션 '휴넬'이 강력한 정보보호 기능을 강점으로 기업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휴넬은 ▲개인정보 암호화 ▲접속기록 자동 보관 ▲퇴직자 계정 자동 차단 및 파기 ▲사용자 역할 기반 접근제어(RBAC) ▲핵심 데이터 추가 인증 기능 등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 기능을 기본 탑재하고 있다. 또 정보보안 국제인증 ISO/IEC 27001:2022, 국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ISMS를 확보했다. 특히 온프레미스(On-premise) 환경에서 고도화된 보안기능을 갖췄다.

HCG의 휴넬은 지난해 하나은행, 아이엠뱅크, 현대해상보험, KB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보안이 크게 강화된 다양한 금융 기관에서도 사용 중이다.

HCG 휴넬 최고운영책임자인 김영만 전무는 "HR 정보는 기업의 핵심 자산이며, 그에 따라 정보보호도 기업 운영의 필수 요소"라며 "앞으로도 기능 중심의 HR 시스템을 넘어, 지속적인

보안 강화와 투자를 통해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휴먼컨설팅그룹, "급여 아웃소싱, 기업 필수 도입 서비스로 부상"



QR클릭

휴먼컨설팅그룹(대표 박재현, 이하 HCG)은 글로벌 기업들의 한국법인이 급여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법적 리스크, 기밀유지, 데이터 보안 등 다양한 요구사항을 안정적으로 충족하기 위해, 급여 아웃소싱(Payroll Outsourcing, PO)이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은 급여 아웃소싱을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로, 내부 인사 인력이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입을 모았다. 급여 업무는 ▲노동법·세법·사회보험 등 자주 변경되는 법적 기준의 신속한 반영 ▲성과·수당·복리후생 등 개별 요소의 반영 ▲외국인 세율 대응 등 복잡성과 리스크가 높은 영역이다. 이에 글로벌 본사는 현지 법규에 맞는 처리와 전사적 보고가 가능하도록 한국 법인의 급여 업무를 신뢰 가능한 전문 파트너에 위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변화에 발맞춰 HCG는 자체 HR 솔루션 제이드, 휴넬, 탈렌엑스를 통해 **글로벌 기업에 최적화된 급여 아웃소싱 솔루션**

**을** 제공하며 시장 입지를 넓히고 있다. 특히 **정보보안 국제 인증 ISO/IEC 27001:2022, 국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ISMS를 확보**하기도 했다. 또 사업변화와 인력변동에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하고, **전문 인력을 통한 관리 지원으로 업무에 편의와 정확성**을 높인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휴먼컨설팅그룹 PO 본부는 2018년 설립 이후, 초기 고객사들과의 계약이 현재까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최근 전사 차원에서 진행된 고객성공관리 분석에 따르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실무 담당자와의 신뢰 기반 협업이 장기 계약 유지의 핵심 요인으로 확인됐다.

급여 아웃소싱 서비스의 효율은 글로벌 기업들의 성과 사례를 통해 더욱 뚜렷하게 확인된다. 미국에 기반을 둔 모 헬스케어 기업은 한국 법인 설립 초기부터 HCG의 급여 아웃소싱을 도입했다. 이 덕분에 내부 HR 인력이 핵심 전략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조기에 확보하고, 구성원 만족도 역시 뚜렷하게 상승하며 업계 평균을 상회하는 빠른 성장을 기록했다.

또한 모 일본 기업은 주재원세금(TEQ), 배당소득세, 외국인 단일세율 등 다국적 과세 이슈를 고려해 아웃소싱 도입을 결정했고, HCG PO 본부를 파트너로 선정하여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급여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이밖에 영국 본사를 둔 모 산업가스 기업은 내부 통제와 정보 보안 수준이 매우 높은 운영 정책을 유지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HCG의 급여 아웃소싱 서비스를 도입해 글로벌 본사의 보안 기준과 내부 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운영 체계를 구축했다.

HCG PO 사업본부장 허욱 전무는 "글로벌 본사를 둔 기업들은 급여 업무를 단순 위탁이 아닌 조직 전략의 일부로 접근하고 있다"며 "**HCG는 국내 법규뿐 아니라 다국적 회계 기준과 운영 정책을 모두 이해하는 파트너로서 급여 아웃소싱을 통해 고객사의 전략적 유연성과 운영 효율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휴먼컨설팅그룹, 나이스그룹에 '탈렌엑스' 공급



QR클릭



휴먼컨설팅그룹(대표 박재현, 이하 HCG)이 나이스그룹에 HR SaaS 플랫폼 '탈렌엑스(talenx)'를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HCG는 금융권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산업군에서 e-HR 솔루션 구축에 강점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나이스그룹은 1986년 설립된 금융인프라 기업으로, 신용평가, 데이터, 결제, 금융서비스, 모빌리티, 제조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현재 나이스그룹 내 11개 계열사가 탈렌엑스의 성과관리 및 평가관리 모듈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로 5개 계열사가 이를 채택했다. 오는 4월부터는 인사관리와 근무관리 모듈을 확장 도입하고, 7월에는 급여관리까지 적용해 올인원(All-in-One) HR 시스템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번 탈렌엑스 도입은 보안 규제가 엄격한 금융권에서 클라우드 기반 HR SaaS를 채택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탈렌엑스는 ISO 27001 및 ISMS 인증을 획득하고, 금융보안원의 CSP 안정성 평가 기준을 충족하며 보안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HCG가 국내 150여 개 대기업 그룹사의 HR 시스템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나이스그룹의 요구를 충족시켰다는 평가다.

탈렌엑스는 성과관리, 평가관리, 인사관리, 근무관리, 급여관리 등 통합 인사 운영을 지원하는 올인원 HR SaaS 플랫폼으로, 대기업 그룹사의 복잡한 조직 구조와 계열사별 상이한 인사 정책을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는 맞춤형 설정이 특징이다. 개별 계열사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그룹 차원의 통합 인사 전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통합 인사 데이터와 이력관리를 통해 핵심 인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략적 인사배치를 지원한다.

HCG 백승아 부사장은 "탈렌엑스는 다양한 모듈로 기업 규모에 맞춰 유연하게 활용 가능하며, 최신 클라우드 기술과 SaaS

기반으로 구축 비용과 도입 기간을 크게 줄인다"며, "앞으로도 높은 보안성과 기업별 맞춤형 인사 운영을 지원하는 HR 테크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HCG는 지난해 하나은행, 현대해상보험, 현대차증권, KB증권, 아이엠뱅크 등 주요 금융사를 신규 고객으로 확보하며 금융권 e-HR 솔루션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 "AI+HR 시대 공포, 지레 겁먹을 필요 없다" [ER인터뷰]



QR클릭



생성형 AI와 클라우드 기술의 확산은 HR 분야에도 큰 변화를 몰고 왔다. 하지만 오랜 전통을 가진 HR 업계에 갑작스러운 변화는 혼란과 적응의 어려움을 동반하고 있다.

그러나, 백승아 휴먼컨설팅그룹(HCG) 부사장의 생각은 다르다. 백승아 부사장이 바라보는 한국 HR 업계는 2000년대 이후 시기별로 뚜렷한 변화 과정을 거쳤다.

2000년대 초반: 글로벌 스탠다드를 도입하며 ERP 등 시스템 도입, 2000년대 중반: 성과 평가와 리더십 개발 등 토폴로지 매

니저먼트 부상, 2010년대 이후: 직원 경험과 기업 문화가 중시되며, 유연근무제와 워라밸 강화, 2020년대: 디지털 전환과 AI의 시대 본격화로. HR에서도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접근이 확대. 기존의 HR과 IT 역할 구분이 모호해지고, AI는 인재 분석, 사용자 경험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백부사장은 "AI는 사람의 판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고 강화하는 도구로 활용되면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면서 "근태 및 휴가관리, 신입사원 온보딩 절차, 입퇴사 관련 행정처리, 복리후생 신청 및 기록 관리 등과 같이 반복적이고 표준화된 행정 업무(HR Transaction업무)는 AI가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이며 직원 만족도 조사, 리더십 및 조직 문화 진단처럼 감성지능처럼 섬세한 문제 해결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AI를 활용한 초기 대응, 기본 분석, 개인화된 피드백 및 커뮤니케이션 추천 기능이 역시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그는 "물론 최종 의사결정 권한은 HR 전문가가 내리면서 AI의 분석 결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동반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AI와 HR이 가진 각자의 강점을 활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백 부사장은 AI 웨이브가 닥쳐오고 있으나 아직은 시간차로 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는 주장을 꺼냈다. 지금의 공포는 말 그대로 과정일 뿐이며, 학습의 시간은 존재한다는 뜻이다. 그는 "(AI가 HR에 큰 변화를 끌어내고 있으나)아직은 실험적 단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기업들과 HR 담당자들이 AI로 인해 실제 겪고 있는 현실은 오히려 FOMO(Fear of Missing Out) 현상에 가깝다고 느껴질 때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AI 생태계가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거나 뒤쳐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존재한다"면서 "이해한다. 그러나 기술적 가능성과 실무에서의 가치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존재하며 현재는 모든 HR 전문가들이 시행착오와 학습을 거쳐 AI가 HR에서 진정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사 일부 발췌)

# HCG 제이드, 통상임금 · 육아지원 3법 등 반영해 中企 HR지원 강화



QR클릭



휴먼컨설팅그룹이 중소기업 맞춤형 HR 시스템 '제이드'(JaDE)에 개정된 노동법 및 변화된 근로환경을 업그레이드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2024년 12월 대법원이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변경하면서 기업들은 급여 및 수당 계산 방식을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여기에 2025년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으로 인해 육아휴

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연장됨에 따라 기업들은 직원 개별 상황에 맞춘 복리후생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반도체특별법 논의를 통해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이 검토되는 등 근무 형태의 변화도 예상되면서 기업들이 탄력적인 근태 관리를 도입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HCG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제이드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제이드는 기업의 요구사항과 제도적 특성을 시스템 설정만으로 반영할 수 있는 높은 유연성을 갖추고 있다.

또 급여 아웃소싱 연계를 비롯해 탄력적 근태 관리, 맞춤형 복리후생까지 인사관리 기능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나아가 변화하는 노동법과 근로정책에 맞춰 지속 업데이트되며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휴먼컨설팅그룹 관계자는 “노동법과 근로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이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HR 시스템의 핵심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기업들의 HR 운영을 최적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HCG, SK바이오사이언스 HR 시스템 구축



QR클릭

휴먼컨설팅그룹(대표 박재현, 이하 HCG)이 자사의 솔루션 '휴넬'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새로운 HR 시스템을 구축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HCG는 지난해 3월부터 SK바이오사이언스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시스템을 설계했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내·외부 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 테스트를 거쳐 올해 2월에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조직·인사·직무·시스템·인터페이스 서비스를 먼저 출시하고, 올해 1월에는 보상영역 서비스도 추가 오픈했다. 이에 SK바이오사이언스는 2024년 귀속분 연말정산을 새로운 HR 시스템을 통해 수행했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는 HR 데이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필요한 데이터를 신속하게 추출해 보다 정교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 또한 구성원과 업무 담당자 간 소통 체계가 일원화되면서 HR 업무의 안정성과 편의성이 한층 강화됐다.

HCG가 자체 개발한 e-HR 솔루션 '휴넬'은 20년 이상의 HR 컨설팅과 시스템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대기업과 그룹사에 최적화된 인사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그룹사 통합 구축,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기능, 대량 데이터 자동화 처리, 업무 효율화, UI·UX 개선 등의 요소를 갖추고 있으며, 고객사의 요구에 맞춘 맞춤형 HR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적인 인재 관리, 유연한 시스템 확장성, 대시보드를 활용한 데이터 시각화 기능까지 지원하면서, 기업이 HR 데이터를 보다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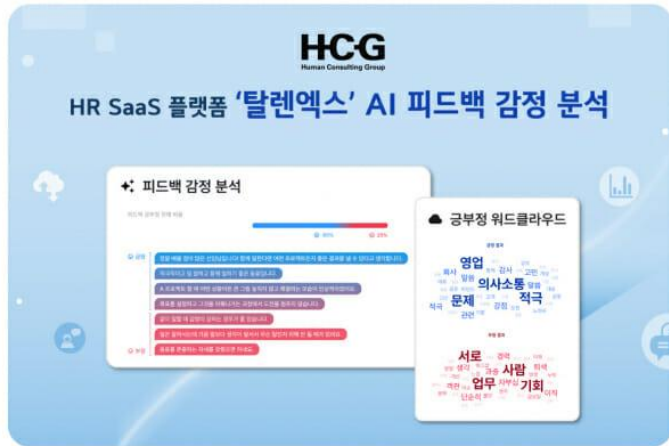
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는 HR 시스템을 구축형(On-Premise)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상시적인 관리가 필요한 성과 및 목표 관리 영역에서는 HCG의 SaaS 솔루션인 '탈렌엑스'의 성과관리 모듈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핵심 HR 데이터는 구축형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도, 확장성과 편의성이 필요한 영역은 SaaS 기반 솔루션을 활용해 보다 유연한 HR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HCG 휴넬 COO 김영만 전무는 "이번 프로젝트는 고객사의 요구를 철저히 반영하여 최적의 HR 시스템을 구축한 성공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HCG는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HR 기술 혁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들켰다 내 마음"... 휴먼컨설팅그룹, 동료 평가에 AI 감정 분석 적용



QR클릭



글 속에 숨겨진 감정을 읽어 사내 동료 평가에 활용하는 서비스가 나왔다. 인사관리(HR) 테크 선도기업 휴먼컨설팅그룹(HCG)은 자사의 HR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플랫폼 '탈렌엑스'(talenx)의 인공지능(AI) 기반 피드백 감정 분석 기능에 대한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술은 모든 텍스트 피드백을 AI가 자동으로 분석해 긍정, 부정, 중립 여부를 높은 정확도로 판단한다. 분석 결과를 워드 클라우드 형태의 시각 자료로 제공하는 기능 또한 갖췄다.

최근 인사 평가 방식이 연중 상시 피드백, 다면 피드백 등으로 변화하면서 텍스트 기반 주관식 데이터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정형 피드백을 분석하는 작업은 대부분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어 시간과 자원이 과도하게 소모되고 판단의 일관성이 떨어진다. 이에 AI를 접목한 자동 감정 분석 기능을 도입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탈렌엑스는 직원이 남긴 줄글 속에서 스스로 감정 요소를 인식하고 분석한다. 인사 평가 담당자가 피드백 키워드를 수동으로 직접 분류하는 방식에서 벗어난 덕에 업무 부담이 적고 정확도가 높은 것이 강점이다. 또 영화 리뷰 데이터, 맛집 데이터 등 일반적인 감정 분석 모델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HR

피드백에 특화된 데이터 묶음을 기반으로 개발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HR 특화 알고리즘 덕에 탈렌엑스는 더욱 높은 신뢰도를 보장한다.

HCG는 AI 기반 피드백 감정 분석 기능을 도입하면서 HR SaaS 플랫폼이 더욱 객관적인 인사 평가 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핵심 솔루션으로 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승아 HCG 부사장은 "HR 업무에서 AI를 활용한 자동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인 인사, 데이터 기반의 인사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휴먼컨설팅그룹 "HR 시스템 '제이드' 15년간 연평균 성장률 41%"



QR클릭



휴먼컨설팅그룹(대표 박재현, 이하 HCG)이 자사의 중소기업 맞춤형 HR 시스템 제이드가 2011년 첫 출시 이후 15년간 연평균 성장률(CAGR) 41%를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HCG는 중소기업들이 HR 시스템을 필수적인 경영 도구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관련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2024년 발표한 기업정보 화수준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의 HR 시스템 구축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500억원 이상 중소기업의 HR 시스템 구축률은 2021년 41%에서 2024년 79%로 상승했으며, 특히 2024년은 2023년(65%) 대비 14%p 증가했다. 경기 침체 우려와 불확실한 경제 전망 속에서도 HR 시스템이 기업 경영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HCG는 이런 HR 시스템 도입 증가의 배경으로 기업 경영에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기업들이 단순한 인사관리에서 벗어나 근무 패턴, 성과 데이터, 이탈 위험 요소 등을 분석해 보다 전략적인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평가다. 또 HR 시스템이 인사관리 효율성 제고와 직원 경력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자동화를 통한 운영비 절감 측면에서도 해결책으로 떠올랐다는 설명이다. HCG는 HR 시스템이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도입 추세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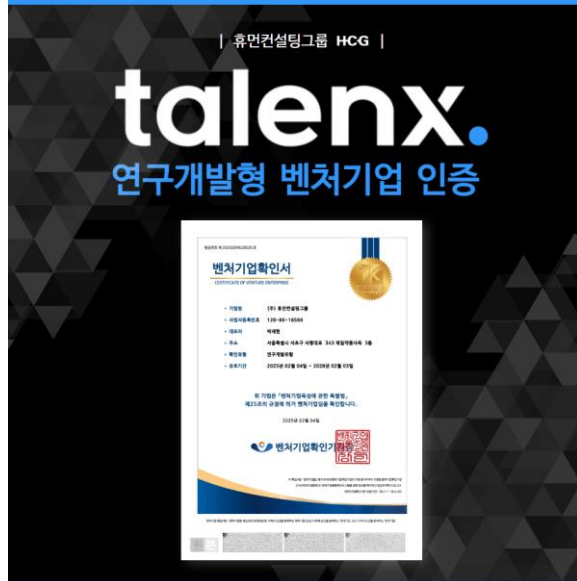
HCG 허욱 전무는 "중소기업의 투자 여력을 고려했을 때, 핵심 HR 기능을 중심으로 사용 편의성을 높인 패키지 시스템 도입이 효과적"이라며 "제이드는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HR 솔루션으로, 도입이 쉽고 비용 대비 효과가 뛰어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제이드는 중소기업용 HR 패키지 시스템으로 인사관리, 급여, 근태, 평가, 복리후생 등 핵심 기능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동시에 제도에 따라 여러 세팅을 제공하는 유연성까지 갖췄다. 또 급여 아웃소싱과의 연계 서비스도 제공해 기업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다.

# 휴먼컨설팅그룹, HR SaaS로 '연구개발형 벤처기업 인증' 획득



QR클릭



휴먼컨설팅그룹(대표 박재현, 이하 HCG)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반 HR플랫폼 '탈렌엑스'를 통해 연구개발형 벤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연구개발형 벤처기업 인증은 기술 개발 역량과 성장 가능성

을 갖춘 기업에게 주어진다. 기업이 자체 연구소를 보유하고, 연 매출 100억원 이상의 소프트웨어 공급업의 경우 연구개발비가 매출액 대비 8% 이상을 차지해야 인증 조건이 갖춰진다.

HCG는 이미 2017년도에 맞춤형 e-HR 솔루션 '휴넷'과 중소기업형 HR 패키지 '제이드'를 기반으로 연구개발형 벤처기업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탈렌엑스는 성과관리 및 평가 모듈을 중심으로 ▲인사관리 ▲근무관리 ▲급여관리 ▲워크플로우 등 HR의 주요 기능을 결합한 올인원 HR SaaS 플랫폼이다. 다양한 모듈로 구성돼 있어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유연하게 활용 가능하며, 최신 클라우드 기술과 SaaS 기반으로 구축 비용과 도입 기간 없이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 또 탈렌엑스는 최신 데이터 보안 기술을 적용해 민감한 HR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높은 수준의 보안성과 경쟁력을 갖춘 솔루션으로 평가받고 있다.

HCG 백승아 부사장은 "앞으로도 HCG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HR 테크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강화할 것"이라며 "탈렌엑스를 중심으로 HR SaaS 솔루션의 혁신을 이끌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휴먼컨설팅그룹, 대기업 e-HR 솔루션 구축 계약 150건 돌파



QR클릭

K-HR 테크 선도기업 휴먼컨설팅그룹(대표 박재현, 이하 HCG)이 최근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에스엘'의 글로벌 통합 인사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직원 수 1천 명 이상 대기업의 e-HR 시스템 구축 계약이 150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대기업 계열사까지 포함한 대기업군으로 범위를 확장하면 358번째 수주다.

이번 프로젝트는 에스엘 계열사 간 인사시스템을 통합 구축함과 동시에 미국, 중국, 인도, 폴란드, 브라질 등 해외 법인까지 2단계로 확장 구축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이로써 HCG는 지난해 정유·석유화학·배터리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S사, 유통·화학·식품·호텔·건설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L사, 섬유·석유화학·금융·미디어·레저사업으로 유명한 T사 등 대규모 그룹사의 수주에 이어 에스엘의 e-HR 프로젝트까지 차지하며 현재 국내에서 독보적인 HR 전문기업임을 증명했다.

HCG가 국내 유수의 대기업 그룹사 프로젝트를 잇따라 수주하는 데에는 대표 솔루션인 휴넬(hunel)의 역할이 컸다. 휴넬

은 1,000명 이상 규모의 대기업이나 그룹사 맞춤형 솔루션으로 근태관리·성과 평가·급여·복리후생·연말정산 등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휴넬의 장점은 국내 대기업 그룹의 니즈를 가장 잘 반영했다는 것이다.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적 인재 관리, 유연성 및 확장성, UI/UX의 사용성 및 편의성, Data 기반 인재 관리, 자동화 처리 및 업무 효율화, 대시보드를 통한 시각화 등 기업이 HR에서 원하는 요소가 휴넬 솔루션의 강점과 일치한다.

또한, 휴넬은 변화에 대한 유연성이 장점으로 국내 본사를 둔 기업이 해외 확장할 때 가장 적합한 솔루션으로 인정받고 있다. 국내 기업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구축 후 해외 시장으로 확장함으로써 현지 고유의 업무환경과 프로세스에 대한 니즈를 효과적으로 반영한다.

HCG 휴넬 COO인 김영만 전무는 "에스엘의 글로벌 통합 인사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수주는 HCG가 보유한 e-HR 탑 브랜드

인 휴넬의 경쟁력과 경험이 다시 한번 입증된 결과"라며,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기술 혁신을 선보이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로 시장에서 리더십을 공고히 할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 “AI가 HR 업무 대체”...HCG, 2025년 HR 전망 발표



QR클릭



지난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는 'HR 테크 콘퍼런스 2024'가 개최됐다. 업계 최신 트렌드와 혁신 기술을 공유하는 이 콘퍼런스는 글로벌 HR 테크 기업들이 주목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행사로 자리 잡아왔다.

콘퍼런스에서 가장 큰 화제를 모은 주제는 단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HR'이었다. 행사 기간 내 열린 엑스포에 참가한 421개 업체 중 91개가 AI 분야에 속해 있을 만큼, HR 분야에

서 AI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챗GPT3 모델이 출시된 이후 생성형 AI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AI가 HR 업무에 얼마나 활용될 수 있을지' 대한 기대가 계속되고 있다.

HR 테크 콘퍼런스 2024에서는 2025년 HR 전망을 세 가지 주요 방향으로 정리했다.

우선 AI는 실제 HR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단계로 발전할 것이다. 기존에는 AI가 단순히 HR 데이터를 활용해 직무 기술서를 작성하거나 HR 규정 관련 질문에 답하는 등 알맞은 언어를 제공하는 데 그쳤다면, 앞으로는 사용자 요구를 파악하여 업무를 실제로 실행하는 형태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로는 사용자 명령만 수동적으로 수행하던 AI가 스스로 업무를 처리하고 일정을 조율하며, HR팀의 한 구성원처럼 활동할 것이다. 채용 과정에서도 AI가 직접 지원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채용 프로세스를 전담하는 형태로 활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급여, 근무 관리 등 업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업무에서도 AI를 활용한 HR 프로세스 자동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급여 관리의 경우 AI가 직원 정보를 기반으로 급여 항목을 입력하고, 급여 계산, 검토, 지급, 분석하는 일 모두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HR 업무에서 AI 기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최대 HR 테크 기업 휴먼컨설팅그룹(이하 HCG)의 최효진 탈렌엑스(talenx) 사업총괄 상무는 “많은 기업이 HR 업무에 AI 기능을 빠르게 도입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AI를 기업이 가진 실질적인 HR 문제 해결에 활용해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휴먼컨설팅그룹, 중소기업용 HR솔루션 '제이드' 세미나 성료



QR클릭

HR 테크 기업 휴먼컨설팅그룹(대표 박재현, 이하 HCG)은 18일 서울 삼성동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중견/강소기업용 HR 솔루션 브랜드인 '제이드(JaDE)' 사업본부 주관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제이드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제이드를 도입 및 운영 중인 고객사 HR 담당자들을 초청, 빠르게 변화하는 HR 테크 트렌드와 함께 제이드 솔루션의 발전 전략을 공유하고, 고객사와 소통하며 상호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이드는 다양한 기능과 유연한 HR업무 설정 구조, HR 출신 전문인력의 온보딩 리딩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많은 기업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중견 및 강소기업에 최적화된 HCG의 대표 HR 솔루션이다.

총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AI-Powered HR 등 HR테크 트렌드와 HR솔루션의 발전 방향을 소개하는 'HR 테크 트렌드' △중견/강소기업의 HR업무 효율화를 위한 장기/중기/단기 등 다양한 제이드의 발전 전략과 새로운 혁신성과

를 소개하는 '고객의 목소리로 완성하는 HR혁신, 2025 NEW 제이드' △제이드를 활용하여 HR업무 생산성 향상 팁을 공유하는 '제이드 100배 활용하기' △시스템과 컨설팅 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개념의 급여 아웃소싱 서비스를 소개하는 '제이드와 함께하는 급여 아웃소싱 서비스'의 순서로 진행됐다.

세미나 후 진행된 네트워킹 시간에서는 참석자들이 직접 제이드 패키지에 대한 의견과 개선 요청 사항을 제시했다. HCG는 이를 통해 고객사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중견/강소기업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HR 솔루션으로 성장할 계획을 밝혔다.

제이드 사업본부 허욱 전무는 "이번 제이드 세미나는 HR테크와 솔루션 혁신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고객사와의 신뢰를 더욱 강화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고객사뿐만 아니라 중견/강소기업의 HR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세미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CG는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중견/강소 기업의 HR 혁신을 지원하는 새로운 제이드 개발 및 시스템과 결합된 페이롤(Payroll) 아웃소싱 서비스 도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휴먼컨설팅그룹, 금융권 e-HR 솔루션 대거 수주...시장 지배력 강화



QR클릭



K-HR 테크 선도기업 휴먼컨설팅그룹(대표 박재현, 이하 HCG)은 최근 아이엠뱅크를 비롯한 대형 금융기업사들의 e-HR 솔루션 구축을 연달아 수주하며 금융권에서 독보적인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HCG는 올해 아이엠뱅크뿐만 아니라 하나은행, 현대해상보험, 현대차증권, KB증권 등 주요 금융사들을 신규 고객사로 확보했다. 금융권 e-HR 솔루션 구축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키워가고 있는 HCG는 이를 통해 금융권 e-HR 솔루션 시장에서 더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하게 됐다.

HCG가 금융권에서 잇단 승전보를 기록하고 있는 건 크게 세 가지로 풀이된다. 최신 HR 트렌드 반영, 강력한 정보보안,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에서 차별적 강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핵심 인재를 통한 성과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최신 HR 트렌드인 데이터 기반 인재관리가 필수다. HCG는 HR 데이터 분석과 디지털 기반 인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전문조직을 보유한 국내 유일 업체로서, 다양한 분석 기법과 경험, 인사이트를 활용한 심층 분석 및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고 있어 금융권 기업 만족도가 높다.

또 금융권은 업종 특성상 정보보안 관련 요구사항이 많을뿐더러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를 안정적으로 충족하는 e-HR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다. HCG e-HR 솔루션인 휴넬(hunel)은 국내외 공신력 있는 보안 인증(ISO/IEC 27001, ITSM)을 받은 제품으로, 특히 솔루션 구축 이후 전문기관 시큐어 코딩 테스트 및 모의 해킹 수행 시에도 정보보안 수준이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산업 특성을 반영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가 솔루션을 선택하는 주요 요소인데, HCG 휴넬은 금융업종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설계가 큰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금융권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인력의 투입을 요구하는데, HCG는 국내 최대 HR 업체로서 200여명의 HR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금융권 구축 사례를 통해 외산 솔루션이 금융권의 특수한 요구사항을 맞추지 못하는 부분까지 제공하고 있다.

특히, 휴넬은 변화에 대한 유연성이 강화된 e-HR 솔루션으로 인사제도의 변경, 조직개편, 신규 계열사 추가 등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시스템 구축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솔루션을 운영할 수 있어 국내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솔루션으로 인식되고 있다. HCG 휴넬 COO인 김영만 전무는 “금융권의 다양한 구축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금융권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고도화하고, 사용자 경험 혁신을 통해 직원 경험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내년에도 HCG는 다양한 금융기업들 수주를 통해 금융 시장에서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휴먼컨설팅그룹, 60억 규모 유동화 회사채 발행...HR SaaS 플랫폼 '탈렌엑스' 개발 박차



QR클릭

HR테크 선도 기업인 휴먼컨설팅그룹(대표 박재현, 이하 HCG)이 회사채 발행으로 약 60억원 규모 자금을 조달했다. 이는 HCG가 2024년 제2차 기술보증기금 유동화 회사보증(P-CBO) 편입 기업으로 선정된 결과로서, 이 자금은 주로 자사 HR SaaS 플랫폼인 '탈렌엑스(talenx)' 추가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자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탈렌엑스는 지난 7월 HCG에서 출시한 올인원(All-in-One) HR SaaS 플랫폼이다. HCG는 확보한 자금을 탈렌엑스의 인공지능(AI) 기반 기능 개발, People Analytics 등의 기능 고도화 및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강화에 적극 투자할 계획이다.

탈렌엑스는 성과관리와 평가 모듈을 중심으로 근무관리, 인사관리, 업무흐름 등 HR의 주요 모듈을 결합한 플랫폼이다. 모듈화된 풍부한 기능을 활용해 기업별 제도와 운영 환경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모두 사용 가능하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슬랙, 시스코, 네이버, 카카오 등 다양

한 업무 도구와 연동, 대기업 구축형 그룹웨어 및 전사적자원 관리(ERP) 시스템과 실시간 데이터 연동 기능도 제공한다. 조만간 AI 기반 피드백 분석 엔진을 장착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인재 관리와 몰입·경험 강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HCG는 이번 자금 확보와 투자를 통해 한층 유능해진 탈렌엑스를 내세워 고객사들의 HR의 DX(Digital Transformation)를 강력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탈렌엑스는 고객 성공에 기여하는 실전에 강한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장착됨에 따라 국내외 HR 솔루션과 확실히 차별화된 플랫폼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되었다.

HCG에서 자금을 조달한 통로가 된 기술보증기금의 유동화 회사보증(P-CBO)은 유망한 중소·중견기업 및 벤처 투자회사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이번 제2차 사업은 약 1900억원 규모로 진행됐다. 미래 기술과 산업 주도권을 선점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지원에 사업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백승아 HCG CPO(부사장)는 “꾸준한 R&D 투자와 더불어 실질적 가치를 제공하는 AI 및 People Analytics 기술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진화시킬 것”이라면서 “탈렌엑스를 중심으로 기술 투자를 지속해 기업 HR 혁신을 주도하고 HR 솔루션 시장에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휴먼컨설팅그룹, ISO/IEC 27001 · ISMS 인증 획득...개인정보 보안 강화



QR클릭



HR전문기업 휴먼컨설팅그룹(이하 HCG, 대표 박재현)이 자사 HR 솔루션과 서비스에 대해 정보보안 국제인증인 ISO/IEC 27001:2022와 국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인 ISMS를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IEC 27001:2022는 국제 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정보보호 경영시스템에 대한 국제 인증으로 인적, 물리적, 기술적 통제 등 총 11개 영역 133개 세부 점검 항목 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ISMS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

으로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관리체계의 실효성과 보안사고 대응력 등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계속 증가하는 정보침해 사고는 단순히 침해 받은 당사자 피해뿐만 아니라 정보를 유출한 기업의 평판 저하, 고객 신뢰 상실 및 막대한 경제적 손실까지 발생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이 때문에 많은 기업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관리하는데 정보유출 방지와 보호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보유출 시 심각성과 파급력이 매우 큰 HR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HCG는 고객사 직원 인적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선제적인 정보보안인증 획득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인증 획득을 통해 HCG e-HR솔루션과 서비스가 국내외 정보 보안규격과 점점 강화되는 법률적 요구사항들을 충족하는 안전한 보호 관리 체계를 갖추었음을 증명했으며, 고객사 직원 인적 정보가 안전한 환경에서 관리되고 있음을 입증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온프레미스(On-premise) HR 솔루션으로는 처음으로 ISO 27001:2022를 획득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허육 HCG CISO 전무는 “e-HR 솔루션인 휴넬(hunel), 제이드(JaDE), 탈렌엑스(talenx) 및 급여 아웃소싱 서비스(Payroll Service)가 인증 받은 보안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 관심과 투자를 통해 정보보호 수준을 계속 높여갈 계획”이라면서 “어떤 환경에서도 강력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CG는 HR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선도기업으로서, 이번 인증을 통해 고객 데이터 안정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비즈니스 운영 전반의 보안 리스크를 최소화해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 "개인주의 성향MZ 세대, '협업과 팀워크' 뛰어난 동료 선호한다"



QR클릭

#A기업에서 20년째 다니고 있는 김 부장은 올해 새로 채용한 사회 초년생 부서원들과 얘기가 통하지 않아 고민 중이다. 식사도 자기들끼리 따로 먹기 일쑤이고 어쩔 수 없이 야근해야 하는 상황에도 업무를 지시하기 두렵다. 본인만 왕따 당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든다. 이른바 MZ세대들과 소통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게 김 부장의 한탄이다.

MZ세대는 1980년대 초부터 2010년대 초까지 태어난 세대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많은 게 특징이다. 이들은 직장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데 개인 가치관과 개성을 존중받고자 하고 자율적인 업무 방식과 유연한 근무환경을 선호하는 편이다.

그렇다면 개인 가치관과 개성을 중시하는 MZ세대는 일터에서 과연 어떤 동료를 선호할까?

HR 토탈 솔루션 플랫폼 기업인 휴먼컨설팅그룹(HCG, 대표 박재현)이 최근 자사의 올인원 HR SaaS 플랫폼 탈렌엑스(talenx.)를 통해 나타난 MZ세대들의 직장 내 동료 인식에 대한 통계치를 공개했다.

탈렌엑스를 이용하고 있는 100여개 고객사에서 동료 간에 주고받은 20만여건 피드백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MZ세대가 가장 선호하는 동료 특성은 '협업과 팀워크'로 전체 피드백의 33.4%를 차지했다. 다른 특성 대비 매우 큰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MZ세대 특성인 개인주의적인 성향과는 대비되는 의외의 결과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그 다음으로는 '긍정적인 태도와 에너지'(19.6%), '주도적인 문제 해결'(9.1%), '나의 성과와 성장에 도움·지원'(7.9%), '창의성'(6.9%), '신속한 업무 처리와 일정 준수'(6.7%), '업무 성과 탁월'(5.8%), '성장 노력'(5.2%), '도전 정신'(4.8%), '전문 지식 보유'(0.5%)가 뒤를 이었다.

회사 내 다수를 차지하는 MZ세대는 '콜포비아'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전화나 대면 커뮤니케이션을 부담스러워하는 반면에 메신저와 같은 비동기 커뮤니케이션을 선호하고 활발하게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 이들은 SNS 네이티브로서 자기 표현에 거침이 없고, 동료에 대한 감사와 인정도 SNS처럼 표현하기 일쑤다.

이 같은 MZ세대 특징을 고려할 때, 일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주고받은 피드백 데이터 분석은 대면 인터뷰 등에서는 잘 표현하지 않는 속내와 구성원에 대한 인식까지 파악할 수 있어 인재관리에 매우 유의미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HCG의 박다함 피플 데이터 애널리스트(People Data Analyst)는 "기업 인재관리는 일반적 선입견을 갖고 판단하기보다 데이터에 기반해 인재 특성과 니즈를 분석해야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 탈렌엑스와 같은 HR SaaS 플랫폼을 활용해 일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상호 피드백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유의미한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출시한 HCG 올인원 HR SaaS 플랫폼 탈렌엑스는 MZ세대는 물론 다양한 직장인들의 근무행태, 성과, 급여 등 데이터를 토대로 기업 경영자들이 구성원들을 이해하고 최적의 의사결정을 돕는 다양한 통계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휴먼컨설팅그룹 “국내 환경에 맞춘 HR 솔루션, SaaS 시장까지 확장



QR클릭

## 국내 기업 환경에 맞춘 HR 솔루션의 필요성

HR은 사람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나라마다 근로 환경, 관행, 문화 등이 다르기 때문에 해외 솔루션이나 글로벌 트렌드, 모범사례 등을 국내 기업에 도입하면 마치 맞지 않는 옷에 몸을 구겨 넣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불필요한 기능을 억지로 써야 할 때도 있고, 반대로 꼭 필요한 기능인데 수작업으로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트렌드나 모범사례를 국내 기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업 환경을 고려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합니다.

국내 기업 환경에 최적화한 HR 컨설팅, eHR 솔루션을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사업 초기에는 채용, 성과 관리, 급여 및 성과급, 복리후생 등 기업 인사 제도를 구축하는 HR 컨설팅을 주로 했습니다. 동시에 개발 인력을 확보해 eHR 솔루션도 개발했습니다. 기업이 HR 정책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기반 솔루션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초기부터 eHR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지난 2006년 자사 첫 eHR 솔루션 휴넬을 출시했습니다. 휴넬은 대기업 및 그룹을 위한 솔루션으로, 기업 요구사항에 맞춰 설계 및 구축하는 구축형으로 제공합니다. 휴넬은 출시 이후부터 지금까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인사 철학을 잘 반영하면서 국내 환경에 적합하고, 실행하기 좋다는 피드백이 많습니다. 덕분에 매출, 고객사, 사용자 수 측면에서 업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중견 및 강소기업을 위한 올인원 패키지 제이드를 선보였습니다. 제이드는 높은 유연성과 성능을 지닌 eHR 패키지로 합리적인 가격을 갖춘 솔루션입니다.

지난 7월에는 올인원 SaaS 솔루션 탈렌엑스를 론칭했습니다. 탈렌엑스는 성과 관리 기능을 제공하던 퍼포먼스 플러스(Performance Plus)에 다양한 HR 기능을 추가한 솔루션으로,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들 eHR 솔루션을 통해 설립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

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매년 20~30%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저희는 국내 800여 개 기업을 고객으로 두고 있으며, 약 70만 명의 이용자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 최신 기술 접목한 올인원 SaaS 솔루션, 탈렌엑스

코로나19 팬데믹, 디지털전환, 기술 발전 등으로 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과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간 쌓아온 HR 컨설팅 역량과 기술력, 노하우에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탈렌엑스를 선보이게 됐습니다.

HR 분야에서 SaaS 솔루션은 초기 시장입니다. 새롭게 태동하는 SaaS 시장이 기존 구축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영역을 유지하면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저희는 기존 구축형 솔루션 휴넬과 제이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탈렌엑스를 통해 SaaS 시장을 적극 공략하면서 시장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기사 일부 발췌)*

# 한국기업 맞춤 HR솔루션... 'K인사관리' 호응



QR클릭



1997년 12월 한국이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던 때가 있었다. 잘나가던 기업과 은행들이 도산했고 살아남은 이들은 경영효율화에 주력했다. 당시 인사·조직 등 HR(인적자원관리)분야 글로벌 컨설팅회사 타워스왓슨의 컨설턴트였던 박재현 대표(사진)는 글로벌 모범사례로 꼽히는 관행들을 한국 기업에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했다. 채용에서 성과평가, 보상으로 이어지는 한국 기업의 HR업무 관행이 외국 기업과 달라 외국 HR기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글로벌 혁신 인사기법을 한국 기업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2001년 박 대표가 설립한 회사가 HCG(휴먼컨설팅그룹)다. 3명으로 시작했지만 회사규모는 이듬해 20여명으로 늘었고 2003년엔 HR분야 국내 1위 기업이 됐다. 그만큼 인재채용과 배치, 성과평가 및 보상 등에 이르는 HR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목마름이 컸다는 방증이다.

2006년 HCG는 '휴넬'(HUNEL)이라는 SW(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출시했다. 1000명 이상 규모 대기업이나 그룹사 맞춤형 솔루션으로 근태관리부터 성과평가, 급여, 복리후생, 연말정산 등에 이르기까지 HR 관련 모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13년에는 중견·강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이드'(JADE) 솔루션이 출시됐다. 기존 상의하달식 KPI(핵심평가지표)가 아니라 핵심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적 성과를 상시 평가하도록 한 OKR(Objective Key Result) 중심의 '퍼포먼스 플러스' 솔루션은 2018년에 나왔다. 이 솔루션들을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형태로 만든 '탈렌엑스'는 이달 출시됐다. HR 컨설팅업체이자 SW개발사로서 면모도 갖췄다는 얘기다.

박 대표는 "회사 초기부터 인사제도의 실행력을 위해서는 IT(정보기술) 시스템이 필수라는 점을 인식하고 개발자 조직

을 운영해왔다"고 밝혔다. 컨설팅회사로 출발했지만 HCG의 솔루션은 SW 전문기업 못지않다. 박 대표는 "HCG의 e-HR(전자HR) 솔루션 매출은 글로벌 기업의 국내 매출보다 많다"고 했다. ERP(전사적자원관리)나 회계·세무 등 분야는 처리 프로세스가 글로벌 전역에 걸쳐 상당수준 표준화한 반면 HR은 그렇지 않다. 각국 노동관행의 문화·제도적 차이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에 최적화한 HCG의 솔루션이 인사담당자들로부터 호평받는 이유다.

현재 HCG에선 약 300명의 임직원이 컨설팅부터 개발, 영업 등을 담당한다. 고객사가 약 800곳에 이르고 HCG 솔루션 사용자는 63만여명에 달한다. HCG의 매출은 2008년 100억원을 달성한 후 2020년 200억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매출은 290억원, 올해는 400억원을 목표로 한다. 박 대표는 "이미 연초 기준 320억원가량의 수주가 확보돼 있고 휴넬 등 온프레미스(구축형) 방식으로 공급된 제품의 유지보수 관련 매출도 70억원 정도"라며 "여기에 이번에 출시된 SaaS형 탈렌엑스는 구독고객수가 늘어날수록 관련 매출이 커지는 구조"라고 했다.

(기사 일부 발췌)

# HCG, HR SaaS 플랫폼 '탈렌엑스' 출시...인재관리 혁신



QR클릭

HR 전문기업인 휴먼컨설팅그룹(대표 박재현, HCG)은 HR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올인원 HR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플랫폼 '탈렌엑스(talenvx)'를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탈렌엑스는 성과관리, 평가 모듈을 중심으로 근무관리, 인사관리, 워크플로우 등 HR의 주요 모듈을 결합한 통합 인재 솔루션이다.

HCG는 이미 성과관리와 평가 모듈을 중심으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제공하여 HR SaaS의 운영 효과성과 비용 효율성을 입증해왔다. 800여 개의 고객사와 70만 이상의 사용자가 검증한 맞춤형 HR 솔루션의 전문성을 결합하여, 이번 올인원 HR SaaS 플랫폼 '탈렌엑스'를 설계했다.

국내 HR SaaS 시장은 디지털 전환과 원격 근무 확산, 비용 효율성 등의 영향으로 급성장 중이며, 시장조사기업 맥시마이즈 마켓 리서치는 SaaS 기반 HR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이

12.5%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국내 HR SaaS 시장에는 다수의 솔루션들이 존재하지만, 기존 HR 솔루션들은 근태, 채용, 성과관리 등 특정 모듈에만 초점을 맞추고, HR 전 모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소규모 기업에만 한정되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탈렌엑스는 애자일한 운영을 선호하는 스타트업부터 복잡한 제도와 다양한 운영 환경이 필요한 대기업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풍부한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고객사의 HR 철학과 운영 정책에 따라 모든 HR 기능을 유연하게 설정하고 적용할 수 있는 차별점을 지닌다.

탈렌엑스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슬랙, 시스코, 네이버, 카카오 등의 대표적 업무 도구와의 자동 연동, 대기업 그룹의 자사 구축형 그룹웨어, 전사적자원관리(ERP) 등과도 실시간 데이터 연동이 가능하여 HR SaaS 특유의 연결성과 유연성을 강화했다.

HCG는 20여 년이 넘는 HR 컨설팅과 서비스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HR 트렌드, 베스트 프랙티스, 리더십 진단 모델, 성과 목표 추천 등 다양한 HR 전문 콘텐츠를 탈렌엑스에 탑재해 제공할 계획이다.

탈렌엑스에는 이미 AI 기반의 데이터 학습과 분석 모델링을 적용하여 평가자 의견의 긍정-부정 수준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주요 키워드를 시각화할 수 있는 피드백 분석 엔진이 장착되었으며, 향후 HR 운영 최적화, 이상 데이터 신속 탐지, HR 예측 및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다양한 AI 기능이 개발되어 탑재될 예정이다.

HCG 박재현 대표는 "올인원 HR SaaS 플랫폼인 탈렌엑스는 인재 관리의 모든 것을 아우르고 있다"면서 "탈렌엑스를 통해 구성원은 성장과 몰입을, 인사 담당자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경영진은 사업 전략의 성공적인 수행을 달성할 수 있는 탁월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5년간 매출액 2배 이상 성장...HCG, "대기업 HR테크 시장 석권 기대"



QR클릭

국내 최대·최고 HR 전문 기업 휴먼컨설팅그룹(대표 박재현, 이하 HCG)이 올 1분기 국내 대형 HR 솔루션을 잇따라 수주, 공급하는 등 국내 HR테크 시장에서의 선두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HR테크는 인적자원관리(HR: Human Resources)와 기술(Technology)이 합쳐진 용어로 클라우드, AI,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통해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기술과 플랫폼을 말한다. HR테크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HCG는 2001년 설립 이래 대기업 맞춤형 e-HR 솔루션인 휴넬(hunel)과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e-HR 패키지인 제이드(JaDE), 클라우드 기반의 OKR 성과관리 협업 플랫폼인 퍼포먼스 플러스(Performance Plus) 등의 HR 서비스를 국내 약 800여 개 기업에 공급하고 있다.

HCG는 최근 대형 그룹사를 비롯한 금융, 공공, 서비스 등 전 산업군에 걸쳐 e-HR 프로젝트를 연이어 수주하는 등 HR 솔루션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특히, HR제도가 다양하고 유기적인 시스템이 결합된 대규모 그

룹사의 경우 HCG가 압도적인 경쟁우위를 보이는 분야로 최근 현대백화점그룹 등 다수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HR 솔루션을 구축, 제공했다.

또한, KB증권, 현대해상보험, 하나은행 등 최근 나온 대규모 금융 기업들의 HR 프로젝트를 연달아 수주하는 기염을 토했다.

국내 HR테크 시장은 다수의 업체들이 있으나, 대형 기업 고객들의 그룹사 통합 및 복잡하고 특수한 요구사항을 맞춤형으로 설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업은 많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그간 수많은 대형 기업 구축 경험과 노하우를 탑재한 HCG의 휴넬(hunel) 제품은 국내 인사담당자와 임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Top 브랜드로 자리매김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5년간 2배 이상의 매출 성장과 함께 매년 20% 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 HCG는 지난해에만 40개 이상의 대형 기업에 HR 솔루션을 공급했는데, 올해 1분기에 벌써 25곳이 넘는 기업과 계약을 체결, 올해 대기업 HR테크 시장 석권을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성과관리 기능을 포함한 조직/인사/근무/급여 등 HR 주요 기능부터 AI 기반의 분석/예측기능까지 탑재한 올인원 HR SaaS 플랫폼인 탈렌엑스(talenx)의 출시가 하반기로 예정된 가운데, 다수 기업 고객들의 관심과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올해 HR테크 시장은 생성형 AI나 대화형 AI, 딥러닝 같은 비즈니스 AI가 적용된 HR 솔루션 대중화의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HR 시장에도 거센 지각변동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HCG의 솔루션 서비스 R&D를 총괄하고 있는 CPO(Chief Product Officer) 백승아 부사장은 "전 산업군에서 AI를 도입해 활용하는 움직임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면서 "HCG도 전 솔루션과 서비스에 생성형 AI를 적용해 고객들이 사용 편의성과 운영 효율화 등 HR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트렌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며 HR테크 시장 내의 선도적인 입지를 다져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HR Total Solution Provider